

종전 기대 꺾이자 환율 요동... 美·이란 긴장에 원·달러 출렁

20일 원·달러 환율 1477.2원
역외 증가보다 11.4원 올라
휴전 종료 앞두고 긴장 고조
2차 협상 개최 여부에 촉각
종전 기대 선반영 속 재급등 우려



‘중동사태’ 향방이 원화값 안정의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다. 서울 하나은행 위변조센터에 원화와 달러화가 함께 놓여 있다. /뉴시스

하락 기대감이 커지던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고 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과 레바논(헤즈볼라)의 휴전협정이 체결되며 ‘중동사태’의 출구전략을 제시했지만, 22일 임시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불확실성이 확산하고 있어서다.

20일 서울외환시장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477.2원에 주간거래(오후 3시 30분 증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 증가인 1483.5원 대비 6.3원 내렸지만,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 F) 시장(역외환율 시장)의 원·달러 환율 1개월물 증가인 1465.80원과 비교해선 11.4원 올랐다.

당초 시장에서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이란 측의 호르무즈 해협 개방 소식이 전해진 이후 ‘중동사태’의 종료 기대

감이 커지며 원·달러 환율도 빠르게 하락(원화 가치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오는 22일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미국과 이란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환율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이다.

앞서 이스라엘과 레바논(헤즈볼라)은 지난 17일(현지시간)부터 10일간의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휴전 이후에도 국지적인 충돌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란이 중동사태 종전 및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 조건으로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 중단을 요구했던 만큼 종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

졌다.

지난 17일 오후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돌입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개방을 선언했다. 그러나 이틀 날인 18일 돌연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폐쇄한다고 태도를 바꿨다. 이란 측은 “이란 항만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봉쇄는 명백한 휴전협정 위반”이라면서 “이란 선박의 자유로운 항행이 보장될 때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봉쇄 이유를 들었다.

호르무즈 해협이 재봉쇄된 다음 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은 해상 봉쇄를 돌파하려 시도한 이란 국적 화물선에 발포한 뒤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화물선은 중국에서 출발했으며, 미국 측의 회항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오늘 ‘투스카’라는 이름의 이란 화물선이 해상 봉쇄를 뚫으려 했지만 잘되지 않았다”라면서 “해당 선박은 미 재무부의 제재 목록에 있었고, 지금 미 해병대가 해당 선박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적었다.

미국과 이란이 오는 22일 임시 휴전 종료일을 앞두고 ‘강 대 강’으로 맞서는 가운데, 미국은 오는 21일(현지시간)을 2차 휴전 협상을 위한 시한으로 제시했다. 트럼프는 미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스티브 워코프 특사가 20일 밤 파키스탄에 도착할 것이며, 재러드 쿠슈너(트럼프의 사위)도 21일 협상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이란 항구에 대한 봉쇄 해제를 2차 협상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란의 국영방송 IRNA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와 비현실적 기대, 계속되는

태도 변화, 그리고 휴전 위반에 해당하는 해상 봉쇄 지속을 이유로 이란은 미국과의 2차 협상을 거부했다”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2차 협상의 개최 여부와 그 결과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이미 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종전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어서다.

박상현 iM증권 전문연구위원은 “금리나 환율 등 가격지표는 이미 전쟁 이전 수준을 회복하는 등 종전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다”면서 “2차 협상 개최가 곧 종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 가까워지는 만큼 2차 협상의 개최 여부에 금융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원·달러 환율 또한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구할 것인지, 혹은 다시 급등할지가 2차 협상의 진척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 “전쟁이 재개되면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외환시장은 재차 변동성 장세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주간 환율 상하한선으로

는 달러당 1440~1490원을 제시했다. /안승진 기자



asi1231@metroseoul.co.kr metro

화웨이, 가로 폴더블 ‘퓨라X 맥스’ 출격

화면비 바꾼 ‘여권형’ 폴더블 제시
침체 속 중국 폴더블 성장세 뚜렷

화웨이가 중국에서 업계 최초로 가로형 와이드 폴더블폰 ‘퓨라X 맥스(Pura X Max)’를 출시하며 스마트폰 시장의 새로운 폼팩터 경쟁을 예고했다. 삼성전자와 애플도 하반기 유사한 형태의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어서 3파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20일 화웨이는 중국 상하이에서 발표회를 갖고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퓨라X 맥스를 공개했다. 이번 출시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성장 정체에 빠진 가운데 폴더블이라는 새로운 폼팩터로

돌파구를 모색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은 전년 대비 6% 감소하며 최근 3년 내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AI 스마트폰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실제 교체 수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폴더블 시장만큼은 같은 기간 중국 내 판매량이 전년 대비 65% 급증하며 유일한 성장 엔진으로 부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화웨이는 기존 폴더블의 한계를 지적해 온 화면 비율을 바꾸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퓨라X 맥스는 화면을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구조로,

내부에 7.69인치 WQHD급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외부 커버 스크린은 5.5인치 크기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갤럭시 Z 폴드 시리즈가 유지해온 세로형 바타입을 벗어나 가로 폭을 넓힌 ‘여권형’ 설계를 채택했다. 기린 9030 칩셋을 탑재하고 6000mAh를 웃도는 대용량 배터리와 스타일러스를 지원하며 하모니OS 6.1을 탑재했다. 대화면에 최적화된 AI 기능도 강화돼 스케치나 텍스트 입력만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기능 등이 탑재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metro

트럼프 “합의의 기본 틀은 잡혔다”

▶▶ 1면 美·이란 기싸움... '서 계속

그는 “미 해군이 오만반에서 이를 막아선 뒤 항행을 멈추라고 했으나, 이란 선원들은 응하지 않았고 우리 해군 군함이 기관실에 구멍을 내 정지시켰다”고 했다.

또 “지금 미 해병대가 그 선박을 붙잡아 두고 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도 했다. 트럼프는 해당 화물선이 불법활동 이력 탓에 미 재무부의 제재 명단에 들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 직후 미 중부사령부가 구체적 경위를 발표했다.

트럼프는 또 “대표단이 이슬라마바드

로 향하고 있다. 그들은 협상을 위해 내일 저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는 아주 공정하고 합리적인 제안을 냈고, 그들이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안 그럴 시 이란의 모든 발전소와 다리를 무너뜨리겠다”며 엄포를 놔다.

이어 “더 이상 착한 사람처럼 굴지 않을 것이다. 이란의 살해 기계는 멈춰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같은 날 미 매체 약시오스와 인터뷰에서는 누그러진 표현을 썼다. 그는 “괜찮게 여기고 있다. 합의의 기본 틀은 잡혔다. (협상이 타결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

고양특례시

International Horticulture Goyang Korea 2026

고양국제꽃박람회

꽃, 시간을 물들인다

4. 24(목) ~ 5. 10(일)

일산호수공원

정원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 Goyang International Expo Foundation